

伊 미니어췌어카商標紛爭

— 日本企業間 獨占輸入販賣權圍繞 —

1962年頃부터 이탈리아의 玩具自動車, 1名 미니어췌어 카가 日本市場에 進出하였다.

日本の 輸入販賣商은 (株)아사히(朝日)이고 同社는 이탈리아의 크레멘드 A 쿠라베라와의 사이에 代理店契約을 맺고 쿠라베라가 만드는 미니어췌어카를 轉入販賣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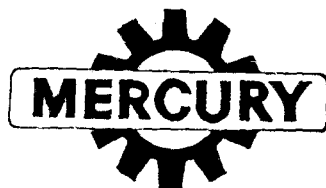
아사히는 過去の 經驗上 美國의 모노그잠商標를 買受하여 미니어췌어카에 關해서 商標登錄 節次를 밝기 시작했다. 쿠라베라會社의 미니어췌어카에는 MERCURY라고 쓰인 英文標章이 表示되어 있으므로 이의 登錄을 出願한 것이다. 그때가 1965年 6月이었다.

그러나 아사히가 出願한 標章과 類似한 標章이 이미 登錄되어 있었다. 그 商標權者는 運動具用品商으로서 이미 1951年에 出願登錄한 것이다.

이때 特許廳은 아사히의 出願에 拒絕査定理由通知書를 送達하였다. 물론 아사히는 意見書를 提出하는등 이에 對處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1967年 3月末, 쿠라베라는 아무 事前協議도 없이 아사히에의 미니어췌어카의 輸出을 突然中止하였다. 아사히의 再三 注文에도 쿠라베라는 아무 解明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同미니어췌어 카는 X圖의 標章이 붙어 있는채 1967년부터 朝日通商(株)이 輸入하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이때의 미니어췌어카는 쿠라베라의 傍系會社인 MERCURY會社로부터 輸入한다는 것이다.

調査에 따르면 머큐리會社는 쿠라베라와 同一社員構成이며 쿠라베라의 商事部門을 獨立法人으로 한 것이지만 獨自業務로서 玩具類의 製造販賣도 하고 있고 미니어췌어카에 關해서는 머큐리만이 取扱하는 것이므로 쿠라베라와는 關係가 없다는 것은 朝日通商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朝日通商은 이 미니어췌어카를 머큐리에서 直接 輸入하는 것이 아니라 머큐리의 日本쪽 製品販賣獨占代理店인 조감會社와 사이에 日本國內獨占販賣權 契約을 맺고 輸入하고 있었다.

이때의 朝日通商은 그 미니어췌어카의 販賣宣傳中에 『이탈리아·마큐리 會社製 미니카』라고 表示하였다. 아사히는 戰略을 바꾸어 Y圖의 商標權者로부터 1967年 6月 5日에 指定商品『玩具 및 運動遊戲具』의 標章中 『玩具』만을 分讓移轉받아 그해 8月 31日자로 登錄을 마쳤다.

아사히는 또한 X圖의 標章에 關한 商標의 登錄出願을 聯合商標로 變更하였다. 그로부터 1年後인 1968年 8月 2日에 미니어췌어카에 表示된 標章 그대로의 X圖標章이 登錄되었다.

이를 契機로 아사히는 朝日通商에 대하여 미니어췌어카의 輸入은 商標權侵害라는 警告書를 發送하였다. 朝日通商은 1968年 9月 30日자로 同警告書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同社는 即時對策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朝日通商은 이 事實을 머큐리에 報告함과 아울러 橫濱港에 入港한 商標가 붙은 商品을 그대로 返送하였다. 그러나 이미 通關措處가 끝난 在庫品은 미니어췌어카에 附着된 商標를 떼내었으나 그 자리는 흔적이 남아 損傷品으로 밖에 處理되지 않으므로 莫大한 損失을 보게 되었다. 또한 同社는 마큐리에 대해서 앞으로 商標를 뿌이지 않고 製造發送토록 要求하였다.